

제 목: 2011년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2월 CBSI 전월비 4.3p 하락한 68.1 기록

- 중동지역 소요 사태로 인한 해외건설 수주 감소 우려로 대형업체 지수 14.3p 하락, 계절적 요인 및 주택경기 회복 주춤 영향 3개월 동안 CBSI 70선 주위 횡보세 -

- 2011년 2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4.3p 하락한 68.1을 기록함.
- CBSI는 지난 1월 전월비 4.5p 상승해 72.4를 기록했으나, 2월에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개월만에 다시 지난 1월의 상승 폭만큼 하락함.
- 이로써 작년 8월(50.1)부터 11월까지 상승세를 보였던 CBSI는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 동안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70선 주위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세를 보임.
- 이는 겨울철에 접어들며 공사물량이 감소한데다 그동안 CBSI 회복세를 주도했던 주택경기가 분양 비수기인 겨울철에 접어들며 더 이상 CBSI 회복세를 견인하지 못한 계절적 요인에 원인이 있음.
- 또한, 2월 CBSI 하락은 대형업체 지수의 하락(14.3p 하락)이 주도했는데, 이를 볼 때 최근 중동지역의 소요 사태로 대형업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건설 수주가 감소할 것에 대한 우려도 2월 CBSI 하락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3월 CBSI 전망치는 2월 실적치 대비 12.4p 상승한 80.5를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13p 가까이 상승했는데, 이는 건설업체들이 3월 건설경기의 침체수준이 그만큼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미임.
- 3월 이후는 일반적으로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발주 물량도 증가하고 주택사업도 3월부터 분양이 본격 시작되므로 3월 CBSI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주택경기가 3월 중 발표 예정인 정부의 주택/부동산 대책에 의해 크게 좌우될 전망이어서 향후 CBSI 흐름은 3월 발표될 정부 대책의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지난 1월 지수가 상승했던 대형, 중견업체 지수는 작년 12월 수준으로 지수가 재하락한 반면, 중소기업 지수는 상승함.
 - 지난 1월에 전월비 16.0p 상승한 92.9를 기록했던 대형업체 지수는 2월에는 다시 전월비 14.3p 하락한 78.6을 기록하며 2월 CBSI 하락을 주도했는데, 최근 중동지역의 소요 사태로 향후 해외건설 수주가 감소할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중견업체 지수 역시 1월에는 전월비 8.8p 상승한 79.2를 기록했으나, 2월에는 다시 전월비 6.1p 하락한 73.1을 기록했으며,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대략 70~80선 사이에서 횡보세를 보임.
 - 한편, 지난 1월 전월비 13.6p 하락한 40.7을 기록했던 중소기업 지수는 2월에는 전월비 9.3p 상승한 50.0을 기록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자재부문 수급이 여전히 양호한 가운데, 인건비와 자금상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재비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수급 지수는 100.9를 기록해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재수급 지수가 전월비 6.4p 하락한 93.2를 기록해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 및 자재비 지수는 각각 86.6, 59.4를 기록하여 최근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자재비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89.1, 86.9를 기록해 자금조달 상황이 여전히 다소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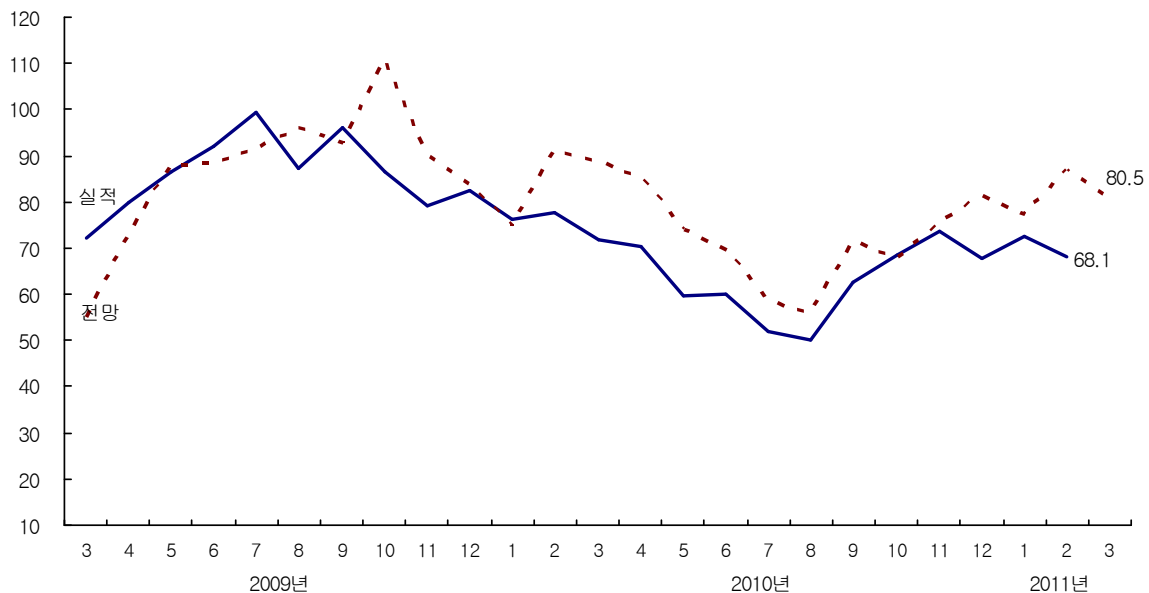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1년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2월 CBSI 전월비 4.3p 하락한 68.1 기록

- 2011년 2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4.3p 하락한 68.1을 기록함.
- CBSI는 지난 1월 전월비 4.5p 상승해 72.4를 기록했으나, 2월에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개월만에 다시 지난 1월의 상승 폭만큼 하락함.
- 이로써 작년 8월(50.1)부터 11월까지 상승세를 보였던 CBSI는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 동안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70선 주위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세를 보임.
- 이는 겨울철에 접어들며 공사물량이 감소한데다 그동안 CBSI 회복세를 주도했던 주택경기가 분양 비수기인 겨울철에 접어들며 더 이상 CBSI 회복세를 견인하지 못한 계절적 요인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음.

< 경기종합 BSI 추이 >



- 또한, 2월 CBSI 하락은 대형업체 지수의 하락(14.3p 하락)이 주도했는데, 이를 볼 때 최근 중동지역의 소요 사태로 대형업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건설 수주가 감소할 것에 대한 우려도 2월 CBSI 하락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3월 CBSI 전망치는 2월 실적치 대비 12.4p 상승한 80.5를 기록함.
 -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13p 가까이 상승했는데, 이는 건설업체들이 3월 건설경기의 침체수준이 그만큼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미임.
 - － 3월 이후는 일반적으로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발주 물량도 증가하고 주택사업도 3월부터 분양이 본격 시작되므로 3월 CBSI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 그러나, 주택경기가 3월 중 발표 예정인 정부의 주택/부동산 대책에 의해 크게 좌우될 전망이어서 향후 CBSI 흐름은 3월 발표될 정부 대책의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지난 1월 지수가 상승했던 대형, 중견업체 지수는 작년 12월 수준으로 지수가 재하락한 반면, 중소기업 지수는 상승함.
 - － 지난 1월에 전월비 16.0p 상승한 92.9를 기록했던 대형업체 지수는 2월에는 다시 전월비 14.3p 하락한 78.6을 기록하며 2월 CBSI 하락을 주도했는데, 최근 중동지역의 소요 사태로 향후 해외건설 수주가 감소할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0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1년 1월	2월		3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70.5	59.5	60.1	51.9	50.1	62.6	68.5	73.7	67.9	72.4	68.1	87.0	80.5
규모별	대형	80.0	64.3	69.2	50.0	50.0	71.4	91.7	91.7	76.9	92.9	78.6	114.3	100.0
	중견	63.0	63.0	57.1	57.1	59.3	69.2	69.2	80.8	70.4	79.2	73.1	83.3	79.2
	중소	67.9	50.0	52.6	48.3	39.7	44.8	40.4	44.6	54.4	40.7	50.0	59.3	59.3
지역별	서울	74.6	63.5	63.5	54.0	55.0	69.6	84.4	91.2	75.3	90.5	79.1	99.0	90.8
	지방	64.4	53.9	56.9	48.8	42.2	51.7	45.1	46.6	56.7	46.2	51.2	69.6	66.9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중견업체 지수 역시 1월에는 전월비 8.8p 상승한 79.2를 기록했으나, 2월에는 다시 전월비 6.1p 하락한 73.1을 기록했으며,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대략 70~80선 사이에서 횡보세를 보임.
 - 한편, 지난 1월 전월비 13.6p 하락한 40.7을 기록했던 중소기업 지수는 2월에는 전월비 9.3p 상승한 50.0을 기록함.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11.4p 감소한 반면, 지방업체 지수는 전월보다 5.0p 증가함. 다만, 지방업체의 지수는 51.2에 불과해 지방의 건설경기 상황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보다 11.4p 감소한 79.1을 기록, 지난 1월 90선을 기록한 이후 한달만에 다시 80선 아래로 하락함.
 - 한편, 지방업체 지수는 지난 1월 46.2를 기록한데 따른 통계적 반등으로 전월 대비 5.0 증가한 51.2를 기록함.
 - 지방업체 지수는 작년 5월(53.9) 지수가 60선에서 50선으로 하락한 이후, 50선을 기준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지속하고 있어, 60선 이상의 뚜렷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음.

공사 물량지수 66.1 기록, 토목 물량만 전월보다 증가, 나머지 공종은 소폭 감소

- 2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5p 증가한 66.1을 기록함. 통상 1월과 2월에 물량상황이 좋지 않으나, 올해 2월은 예년과 비교할 경우 물량상황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분석됨.
 - 공사 물량은 연초에 감소하는 계절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음.
 - 2003년부터 2009년까지 2월 공사물량 지수의 평균은 72.8임.
 - 올해 2월 공사물량 지수는 66.1로 예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이는 토목공사 물량만이 1월보다 소폭 개선되었을 뿐, 나머지 주택과 비주택 물량은 1월보다 오히려 감소하였기 때문임.
- 공종별로 토목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2.2p 상승한 64.9기록함. 주택(56.5)과 비주택(62.6) 물량 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3.2p 1.3p 감소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토목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2.2p 증가한 64.9를 기록함. 다른 공종들이 전월보다 감소한데 반해 토목물량만이 증가하였음.
- 주택 물량지수도 전월 대비 3.2p 감소한 56.5을 기록, 두달연속 하락한

모습으로, 지난 2010년 9월(57.5)과 같은 수준으로 물량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비주택 물량지수 또한, 전월보다 1.3p 하락한 62.6을 기록함.
-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이 78.6, 중건이 73.1, 중소가 43.6을 기록함. 대형업체의 물량지수 감소가 2월 전체 물량지수 하락을 주도하였으며, 대형업체는 토목물량이, 중견업체는 비주택물량이 다른 공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량 침체정도가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7.1p 감소한 78.6을 기록, 전체 물량지수 하락을 주도함. 공종별로 토목물량지수가 78.6을 기록, 주택물량과 비주택물량 지수는 각각 64.3, 71.4를 기록함.
- 중견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5.1p 증가한 73.1을 기록함. 공종별로 토목과 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64.0, 62.5를 기록함. 비주택 물량이 타 공종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함.
- 한편,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7.8p 증가한 43.6을 기록함. 주택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40.4를 기록하였으며, 토목 물량도 또한 50.0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물량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66.1	78.6	73.1	43.6	74.2	53.8
	전망	83.0	107.1	88.0	49.1	94.3	67.4
토목	실적	64.9	78.6	64.0	50.0	74.2	50.8
	전망	74.4	85.7	83.3	50.9	84.9	60.4
주택	실적	56.5	64.3	62.5	40.4	66.5	40.8
	전망	76.1	92.9	86.4	44.7	84.9	63.8
비주택	실적	62.6	71.4	73.1	40.4	73.4	46.2
	전망	76.9	107.1	72.0	47.1	93.7	51.3

주 : 실적은 2011년 2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3월 예측지수임.

- 지역별로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주택물량의 침체로 전월대비 10.1p 감소한 74.2를 기록함. 한편, 지방 업체의 물량 지수는 1월 침체폭이 큰데 따른 통계적 반등으로 18.6p 증가한 53.8을 기록함.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0.1p 감소한 74.2를 기록함. 공중별로는 주택 물량지수의 하락이 두드러졌는데, 서울업체의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대비 11.1p 하락한 66.5로 작년 8월 56.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한편, 지방업체는 지난 1월에는 전월보다 23.4p나 급감한 35.2를 기록하여 매우 부진하였음. 올 2월에는 이에따른 통계적 반등으로 1월보다 18.6p 증가한 53.8을 기록함.
- 2011년 3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1월 보다 16.9p 증가한 83.0로 2월보다는 물량상황이 개선 것으로 전망함. 공중별로는 주택물량의 개선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 토목 물량지수는 2월 실적치보다 9.5p 증가한 74.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주택 물량지수는 2월보다 19.6p 증가한 76.1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3월부터 분양물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으로, 3월에 대략 1만 4천여 가구의 민간 분양이 예정되어 있음.
 - 비주택 물량지수는 2월보다 14.3p 증가한 76.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인력수급 상황 양호한 가운데, 인건비 및 자금상황 다소 어려움 자재비 상황 급속 악화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수급 상황이 여전히 양호한 가운데, 인건비와 자금상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재비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인력수급 지수는 100.9를 기록해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재수급 지수가 전월비 6.4p 하락한 93.2를 기록해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인건비 및 자재비 지수는 각각 86.6, 59.4를 기록하여 최근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자재비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89.1, 86.9를 기록해 자금조달 상황이 여전히 다소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총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89.1	107.1	84.6	73.2	92.8	83.6
		전망	91.7	114.3	84.0	74.1	97.3	84.7
	자금조달	실적	86.9	114.3	80.0	62.5	99.1	67.8
		전망	87.8	114.3	84.0	61.1	99.6	71.6
인력	수급	실적	100.9	107.1	100.0	94.6	103.6	96.5
		전망	95.0	92.9	104.0	87.3	97.6	90.8
	인건비	실적	86.6	92.9	92.0	73.2	92.6	77.6
		전망	82.3	85.7	88.0	71.7	86.0	76.7
자재	수급	실적	93.2	100.0	96.0	82.1	100.0	83.0
		전망	91.5	107.1	87.5	77.8	94.2	87.4
	비용	실적	59.4	71.4	60.0	44.6	69.5	44.5
		전망	50.6	57.1	50.0	43.6	50.6	51.5

주 : 실적은 2011년 2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3월 예측지수임.